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2009년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1인당 82만원

- 금감원은 지능화·조직화 되어가는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.
 - 신고내용이 보험범죄 적발에 기여한 경우에는 적발금액을 기준으로 생·손보험회 및 보험회사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.
 - 다만, 이미 조사 중인 사건이거나 신고사항이 불충분해 보험범죄로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.

- 2009년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에 보험범죄 적발을 기여한 신고자는 166명으로 지급한 포상금은 1억 3612만원으로 나타났으며, 1인당 평균 82만원(최저 6만 9천원, 최고 2,560만원)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.
 - 2009년 포상금 및 신고자는 전년대비 각각 2.0%, 97.6% 증가한 반면, 1인당 평균포상금은 소액사건(운전자 바꿔치기 등) 증가로 전년대비 48.4%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- 실례로 지난해 3월 A씨(45세,여,주부)는 집에서 넘어지면서 깨진 컵에 상해를 입어 봉합수술과 함께 8일간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119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, 이웃의 신고로 이 모든 사실이 A씨의 자작극으로 밝혀져 제보자에게 포상금 50만원이 지급되기도 함.

-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보험범죄 중 일부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강력범죄를 동반함에 따라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으며,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험범죄의 일반인의 관심과 신고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.
 - 더불어 보험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외에도 보험사기범의 표적이 되어 억울하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그 피해도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전함.
 - 또한 보험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, 팩스,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.

(2009년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,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조사분석팀, 2/22)